



12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이 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게 됨에 따라 양돈장에서는 자돈 설사병과 호흡기 질병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해마다 이 시기부터 이듬해 봄까지 자돈 설사병이 유행되기 시작하므로 이번 달에는 자돈 사고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자.

포유자돈의 생존율을 높여 이유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 모돈이 건강해야 한다.
- 합리적인 분만틀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환경관리 및 사양관리, 그리고 방역과 같은 기본관리 사항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1 모돈에 대한 관리

1) 모돈의 바디컨디션 관리

- 겨울철에는 낮은 환경온도로 인해 체온유지를 위한 요구 열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 클리닉, 한국양돈컨설팅그룹)

다른 계절에 비해 사료요구량이 증가하게 된다.

- 겨울철 모돈에 대한 사료급여량은 주위 환경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대체로 평상시보다 10~15% 정도 증량하여 급여하게 된다.

- 사료의 증량 급여를 통해 모돈의 바디컨디션이 양호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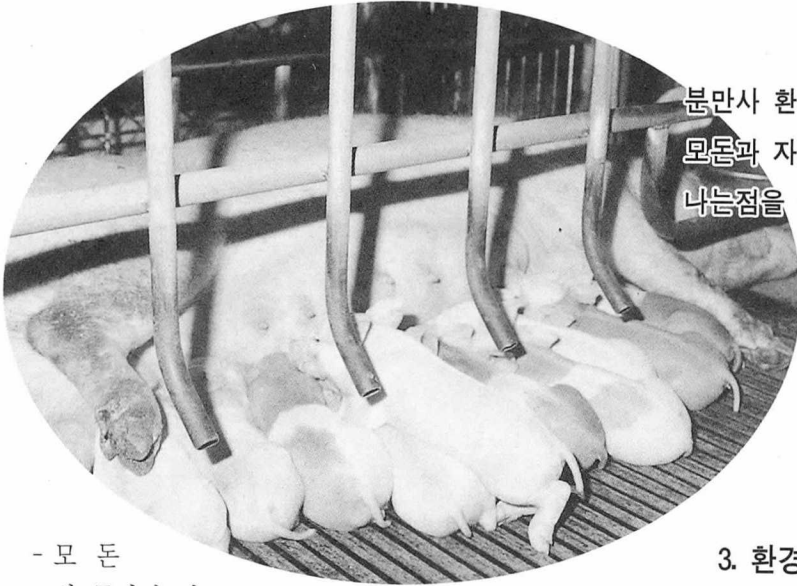
정상적인 생식체중을 갖는 자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허약으로 인한 자돈폐사율을 줄일 수 있다.

2) 모돈의 음수량 점검

- 고장난 닷플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 모돈의 닷플은 분당 1.5ℓ 이상의 양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 정기적인 모돈의 클리닝

- 모돈 클리닝의 목적은 모돈 자신의 만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고 따라서 건강한 자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분만사 환경온도는
모돈과 자돈의 환경적온이 차이가
나는점을 숙지한다.

- 모돈의 클리닝 시기는 연 2회 환절기 기본 클리닝을 실시하고 매 분만시, 즉 분만사 입식부터 이유시까지 꾸준히 예방수준으로 항생제를 첨가한다.

2. 분만틀 시설

- 분만틀은 모돈이 거주하게 되는 공간과 자돈의 휴식자리, 젓빠는 자리 등으로 구획이 나누어 진다.
- 분만틀의 시설에 따라 압사율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며 자돈설사 발생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분만틀 바닥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수가 잘되어야 하며 자돈의 잠자리로 모돈의 오줌이나 급수기의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자돈이 휴식을 취하는 부근에는 자돈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보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압사 및 설사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분만틀에 설치하는 보온시설로는 보온매트, 보온등, 보일러 등을 들 수 있다.

3. 환경관리

1) 온도관리

분만사의 온도 관리가 얼마나 세밀히 이루어지는가에 의해 분만사 관리가 잘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나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기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이 많으므로 한 번의 방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분만사 환경온도는 모돈과 자돈의 환경적온이 차이가 나는점을 숙지한다.
- 한냉 스트레스를 받은 자돈은 허약돈으로 전락해 정상 회복이 어렵다.
- 분만사의 실내온도는 돈사 단열 정도에 따라 20°C~23°C 범위로 유지를 한다.
- 돈사단열이 부실할 경우 난방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돈사단열을 철저히 한다.
- 자돈 주변의 온도는 출생직후 30°C, 1주일 후 27.5°C, 그리고 이유할 때는 22°C~25°C 정도로 유지한다.
- 분만 당일에는 모돈의 뒷 부분에도 보온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신생자돈을 추위로 부터 보호해 준다.

2) 셋바람 차단

- 초당 0.1m의 속도에서 0.6m로 풍속이 증가 할 경우 체감온도는 4°C 저하되는 것과 같다.

〈셋바람으로 부터 자돈을 보호할 수 있는 2중 장치〉

1차 : 돈사 외벽, 출입구의 틈새 밀폐

2차 : 자돈주변에 보온상자와 같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또는 자돈의 휴식자리 부근의 분만틀 칸막이를 밀폐시킨다.

4 사양관리

1) 초유의 신속하고도 충분한 급여

겨울철 방역관리에 특히 비중을 두어야 할 전염성 질병으로는 TGE나 PED 와 같은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있다. 특히 출하차량의 소독 소홀로 인한 질병의 전파가 유난히 심한 상황이다.

- 초유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자돈은 위축이 되어 허약돈으로 진행이 되기 쉽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 위축, 허약자돈은 질병저항력이 떨어지므로 각종 질병에 쉽게 이환된다.
- 가급적 생후 6시간 이내에 빨리 초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허약자돈에는 초유보조를 해줌으로써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

2) 모돈의 무유증 (MMA) 최소화

- 분만예정일 1주일 전에 수세, 소독 후 완전

히 건조된 분만틀에 입식을 시킨다.

- 임신기간중의 사료급여량, 즉 모돈의 바디컨디션을 적절히 맞추어 준다.
- 임신말기에 과량의 사료급여는 과비의 원인이 되며 분만 후 사료섭취량 저하의 원인이 된다. 이는 곧 무유증과 자돈 허약과 관련된다.

5 방역관리

겨울철 방역관리에 특히 비중을 두어야 할 전염성 질병으로는 TGE나 PED 와 같은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있다. 특히 출하차량의 소독 소홀로 인한 질병의 전파가 유난히 심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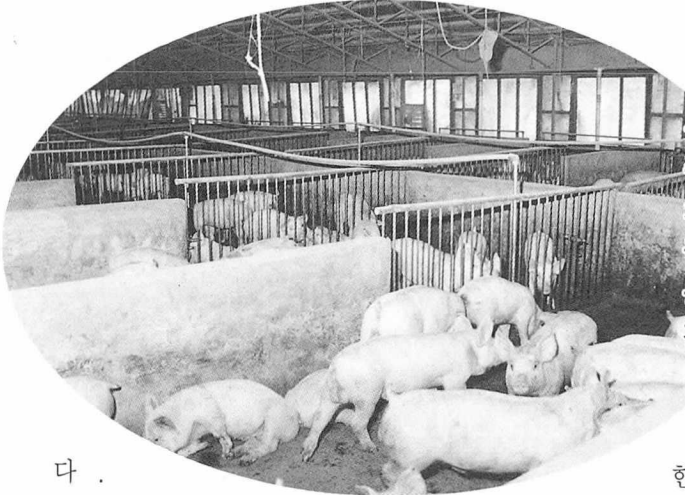
1) TGE, PED의 주요 발병 요인

- 백신접종이 부실한 농장
- 외부 구입돈에 의해 발병 (특히 외부에서 임신돈 및 자돈 구입 후 발병이 많다)
- 출하차량
- 야간출하시 (평상시 관리가 양호한 농장에서 의외로 이 원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
- 인근 농장 발병 (농장주 및 관리인의 잦은 왕래)
- 기본적인 방역관리 및 사양관리가 부실한 농장

2) 백신접종

겨울철 포유자돈의 사고율과 관계가 높은 원인으로서는 바이러스성 설사가 대표적인데 일단 발병하면 치료는 불가능하고 예방이 최선책이다.

- 자돈의 설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돈에 충분한 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 결과 생산된 면역항체를 초유와 유즙을 통해 자돈이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자돈은 감염성 설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우리나라 양돈업계에 위협적인 존재인 미국에서도 이토록 생존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재도약하기 위한 능동적인 생존전략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때이다.

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모돈에 대한 장염백신의 철저한 접종이다.

- 장염백신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TGE, PED, 클로스트리듐, 그리고 대장균 백신 등이다.
- 일반적인 접종시기는 분만 5~6주전에 1차 접종, 그리고 분만 2~3주전에 2차 보강접종을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
(접종시기는 백신에 따라 또는 농장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3) 차단방역

대부분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은 주로 외부에서의 병원체 유입이 문제시 되므로 외부에서의 질병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역대책이 농장마다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출하차량의 소독철저 (가능한 농장내 출입을 차단)
- 농장 울타리 밖으로 출하대 설치 (농장내 출하차량 및 인원의 출입방지)
- 출하대 주변 및 농장 출입구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 외부구입돈의 적응 및 질병유무 파악을 위

한 격리사 설치 (특히 대규모 양돈단지의 경우 필수적임)

- 농장내 인원 및 외부 인원의 출입시에도 소독을 생활화한다. 특히 농장 출입구에 차량 및 발판 소독조 등을 설치하고 신발장을 설치하여 인원의 출입시에 신발을 갈아 신고 다닐수 있게 한다.
- 돈사 내외부 소독을 규칙적으로 실시 (1일 1회 이상)

4) 치료

허약자돈 및 환돈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자돈에게도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원이 되어 농장내에 병원체의 농도를 높일 위험이 크다. 따라서 허약돈 및 설사에 대한 치료관리 대책은 신속히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고 결정한 후 즉시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2년전 호황을 누리던 돈가가 폭락한 요즘, 미국 양돈업계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2만여 농가가 폐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돼지고기의 공급량이 줄고 다시금 호황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양돈업계에 위협적인 존재인 미국에서도 이토록 생존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재도약하기 위한 능동적인 생존전략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때이다. **養豚**